

신보 “민간투자 마중물 자임… 혁신아이콘10社에 70억”

(최장 8년동안)

윤대희 신보 이사장 취임 1주년

신용보증, 컨설팅, 판로개척 등 맞춤형 서비스로 유니콘기업 육성
미래성장성 우수기업 평가 위해
신미래성장성평가시스템 구축도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4일 “혁신아이콘기업”을 지정해 최대 70억원의 성장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아이콘기업이란 창업 2년 이상 10년 이내 기업 중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우수중견기업이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게 최장 8년간 컨설팅, 민간 투자유치 연계 등을 지원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의 탄생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윤대희 이사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혁신생태계가 미흡한 수준으로 신보가 스타트업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신용보증기금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부담해 대규모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윤 이사장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플랫폼 ▲정책과제 선도 ▲사회적가치 확산 ▲고객 중심 등 뉴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혁신계획의 성과와 계

획을 발표했다.

우선 신보는 올해 혁신아이콘기업 10곳을 선정해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을 위해 전담조직을 두고 최장 8년간 최대 7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컨설팅, 판로개척, 민간 투자유치 연계 등 맞춤형 밀착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12월에는 혁신금융 정착을 위한 신(新) 미래성장성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의 미래가치, 성장성을 보증심사에 반영해 신용도는 낮으나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우대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역량, 사회적가치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데이터뱅크와 비대면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신보가 보유한 기업원천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 등 민간에 개방해 데이터 기반의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21년에는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창업기업에 투·융자, 성장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보증 등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윤 이사장은 “민간과 역할분담을 통해 신용평가사(CB)와 은행,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며 “신보와 기업, 유관기관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구축해 수요자

니즈 기반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는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능력과 고용의 질 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달 중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일부 기업에 시범 운용해 체계를 고도화한 뒤 내년부터 대상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체육·안전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보증공급 비중도 올해 5%에서 2021년 이후 10% 수준까지 확대한다.

또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개발도상국 생산자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공정무역 실천기업 인정 절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팩트 프로젝트 보증, ‘소셜벤처 보증’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신상품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소셜벤처 기업 모집… 사업비 1.5억 지원

IBK기업은행 ‘성장지원 사업’

IBK기업은행은 내달 2일까지 ‘IBK 소셜벤처 성장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IBK 소셜벤처 성장지원 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에게 사업비와 컨설팅, 클라우드 펀딩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설립 3년 이내의 법인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소셜벤처,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총 9개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대상 3000만원, 최우수상

2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앞서 기업은행은 ‘IBK 소셜벤처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24개의 소셜벤처를 발굴했다. ‘스마트폰과 연동한 보청기’를 제작해 일본에서 1,000만달러 투자를 유치한 ‘올리브 유니온’, 유기동물 입양·실종동물 찾기 플랫폼을 운영하는 ‘포인핸드’, 미술습작을 재활용해 가방 등을 제작하는 ‘옵니아트’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설명회는 이달 18일 오후 3시에 선릉 디캠프(D.CAMP)에서 진행되며 지원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은행권 脫유니폼 바람… 신한銀, 폐지 결정

KB국민 이어 신한도 자율화 “남녀·직급간 차별 우려 해소” NH농협銀 “직원 반대로 유지”

신한은행이 기존 대리급 이하 여성 직원들만 입던 유니폼을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유니폼을 없앤 가운데 신한은행도 복장 자율화에 나서면서 유니폼 폐지 분위가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주 노사 협의회를 갖고 직원 유니폼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직후인 지난 3일부터 바로 시행했으며, 일단 직원들의 선택에 따라 유니폼과 자율복장을 병행해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니폼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며 “일부 유니폼이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유니폼 자체가 대리급 이하 여성 직원에게만 해당했던 만큼 남녀·



신한금융그룹.

직급차별 요소가 많다는 지적에 폐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지난달 유니폼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직원들이 정장과 비즈니스 캐주얼을 자율적

으로 선택토록 했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직원의 선택에 따라 유니폼과 정장 및 비즈니스 캐주얼을 병행해 착용해 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먼저 시행했던 본부부서의 자율적 복장 기준이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냈고, 직원의 자율성을 높여 조직 충성도도 제고됐다”며 “기존 통일성 추구라는 명목 아래 획일적 틀로 작용했던 유니폼에서 벗어나 직원의 자율성과 수평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복장을 자율화했다”고 밝혔다.

유니폼 폐지를 검토했으나 직원들의 견에 따라 유지기로 한 곳도 있다. 유니폼의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편의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NH농협은행은 본사 일부 직군과 영업점의 계장 이하 여직원 유니폼 폐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유니폼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리브’서 환전하면 최대 100% 환율 우대

KB국민은행 ‘KB환전! 페스티벌’

KB국민은행은 오는 8월 말까지 ‘렛츠(Let's) KB환전! 페스티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KB국민은행 전용 앱인 리브(Liiv)에서 환전시 최대 90%의 환율우대를,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외화ATM기 및 KB서울역환전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80%까지 환율우대를 제공한다.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면 리브, 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상담부 전용전화 등을 통해 ‘KB-포스트(POST) 외화 배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우체국 배달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장소에서 외화를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중에는 환전 금액에 상관없이 배달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이달 말까지 리브 앱을 최초 신규가입 하고 ‘KB-포스트 외화배달서



비스’를 통해 USD, JPY, EUR 통화의 환전을 신청한 고객은 최초 1회에 한해 100% 환율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6월 말까지 리브 또는 ‘KB-포스트 외화배달서비스’를 통해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2019 리브(Liiv) 콘서트 모바일 티켓’을 1인당 2매씩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신한베트남銀, 호치민 랜드마크 푸미흥에 고객자산가 지점

‘신한PWM 푸미흥 센터’ 개점

신한은행은 베트남 현지법인인 신한베트남은행이 4일 호치민시 랜드마크 지역 푸미흥에 고자산 고객들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영업점 ‘신한PWM 푸미흥 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신한베트남은행은 기존영업점 중 레파티오지점, 사이공지점 등 7개 채널에 신한은행의 PWM 모델을 적용해 현지 고자산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에 베트남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고자산 고객들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PWM센터를 개점하게 됐다. 푸미흥은 베트남에서 호치민의 강남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고자산 고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베트남에서 외국계 1위 은행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신한베트남은행은 ‘신한PWM 푸미흥 센터’ 개점을 계기로 고자산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신한베트남은행은 고객별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글로벌 세무, 부동산 등 전문적인 분야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현지의 전문가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PWM컨설팅 전문가도 파견했다.

‘신한PWM 푸미흥 센터’ 고객들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보다 편안하게 상담하고, 화상상담 시스템을 이용해 전문가들과 직접 자산관리와 관련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신한PWM 푸미흥 센터’ 개점을 기념해 고객들이 한국의 세무, 부동산 전문가들과 1대 1 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오는 7일까지 진행한다.

이날 개점식 행사에는 신한은행 WM 그룹 왕미화 부행장을 비롯해 주(駐) 호치민 총영사관, 코참 등 현지 주요 기관의 인사 및 고객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의 전문가와 자산관리 화상상담을 시연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안상미 기자